

박영호의 국민연극 연구

윤일수*

- I. 서론
- II. 민족주의와 친일의 술기없는 이음새
 - 1. 자주권 획득, 대동아공영권 건설
 - 2. 고토회복, 탈아입구의 발판
 - 3. 문명개화, 식민화의 수용
- III. 결론

【국문초록】

국민연극이란, 민족의식에 의거하여 독립된 통일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한 연극이다. 역사적으로는 주로 시민의식 성장에 따른 근대국가의 성립과 관련된 19세기 말의 근대운동을 지칭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국민연극이란, 예술성을 바탕으로 전 국민을 천황의 신민(臣民)으로 만들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진 연극을 지칭한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조선흥행등취체규칙(朝鮮興行等取締規則)을 발표하여 극단·배우·공연작품 등을 엄격하게 검열했으며, 총독부 경무국 사무관인 세이쥬 나리테(星出壽雄)가 국민연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본고에서는 당시 연극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박영호의 작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객원교수

품 을 통해, 국민연극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민연극은 소재 면에서 탄광이나 광산, 어촌을 배경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대동아공영권 건설, 만주로 이민을 간 조선인에 대한 문제, 김옥균과 같은 영웅적인 실존인물 등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소재를 사용하여 황국신민화, 대동아공영권 건립에 관한 메시지를 작품 속에 담음으로써, 일제의 침략 야욕을 실현시켰다. 다음, 방법론에서 당시 국민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직설적으로 국가 정책을 표현할 경우, 상당한 거부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 외에 작품 속에 건전한 꿈을 담으면서, 뛰어난 예술성을 가미하여, 관객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주제어 : 국민연극, 박영호, 대동아공영권, 황국신민화,
양명학, 조선총독부

I. 서론

서양에서 내셔널 시어터(National Theater)는 편의상 국민극이라 번역되고 있으나, 그 개념 속에는 국민극도 민족극도 모두 혼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민족국가, 근대국가의 성립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난 내셔널 시어터운동은 자기 국민이나 민족이 지닌 개성과 현실을 독자적인 연극으로 표현하고, 전통적인 양식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것이다.¹⁾ 그런데 한국에서 국민연극은 1940년 12월 22일에 조선연극협회가 결성되고, 1941년 3월 16일에 현대극장이 조직되면서 구체적인 활동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에 대두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극 이론가인 함대훈에 의하면, 국민연극이란 국가이념을 연극 속에 담아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한

1) 서연호, 『식민지 시대 친일극 연구』, 태학사, 1997. pp.11~22 참조.

다.²⁾ 또한 조선총독부 사무관 세이쥬 나리테(星出壽雄)에 의하면, 국민연극은 적극적으로 반도 인간을 진정한 일본인답게 만들기 위해 민중을 지도·계몽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며,³⁾ 한국인들을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일본 국민으로 동화시키고자 하는 목표에 의해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⁴⁾ 1942년 7월 26일에 조선연극협회와 조선연예협회가 조선연극문화협회로 통합된 후, 같은 해 9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1회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총3회까지 거행된 연극경연대회는 조선총독부를 앞세운 일제가 국민연극을 강요하며, 극단과 배우, 공연작품들을 관리하는 방편의 하나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국민연극에 대한 연구는 이두현에서 시작하여, 유민영·서연호·이미원·김성희·김재석·양승국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이루어졌다.⁵⁾ 국민연극은 공연을 전제로 만들어졌던 관계로 대본 보관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과거를 은폐하려

- 2) 함대훈, 「국민연극의 첫 봉화-극단 현대극장 창립에 제하여」, 『매일신보』, 1941.3.30~4.2.
- 3) 星出壽雄④, 「연극통제의 체문제」, 『국민문학』, 1942.1. (서연호, 『식민지시대 의 친일극 연구』, 태학사, p.169. 이하 (친일극 연구: 페이지 수)로 표기한다.
- 4) 星出壽雄④, 「조선 연극의 신발족」, 『조선』, 1942. 10. (친일극 연구: p.179.) 1934년 5월 8일에 반포된 조선총독부령 제197호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에 따르면, 모든 공연 작품들은 총독부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총독부 경무국 사무관인 星出壽雄의 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창작지침서와 같다.
- 5)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66. pp.173~299./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단국대출판부, 1996. pp.879~935./ 서연호, 『식민지시대 친일극 연구』, 태학사, 1997./ 이미원, 『한국근대극연구』, 현대미학사, 1994. pp.347~372./ 김성희, 「국민연극에 관한 연구」, 『한국연극학』2집, 새문사, 1985. 12. pp.206~233./ 김재석, 「국민연극 시기 ‘조선연극문화협회’ 연구」, 『어문논총』, 40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6. pp.377-395./ 김재석, 「국민연극론의 성격에 대한 소고」, 『문학과 언어』, 22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0. 5. pp.305~329./ 양승국, 『한국근대연극비평사연구』, 태학사, 1996. pp. 398~435.

는 의도로 인하여 작품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평론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극에 대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극의 실제적인 면모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권순중 외 2인이 편찬한 『한국회극선』⁶⁾에 박영호의 <등잔불>이 게재된 것을 시발로, 이미원이 미국 하바드 엔칭 도서관에서 발굴한 국민연극 대본을 영인본으로 발간하면서⁷⁾, 국민연극의 구체적인 면모가 알려졌다. 그중 일부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조금씩 소개되다가, 이재명이 발굴한 일제시대 공연대본과 엔칭도서관 공연대본을 활자화함으로써⁸⁾ 국민연극의 전체적인 면모가 드러났다. 특히 일문으로 된 부분을 번역하여 병기(併記)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박영호는 민족문학작가회가 발표한 친일문인 42인 중에서 송영·유치진·이서구·함세덕과 함께 친일 극작가 5인으로 꼽힌 인물이다.⁹⁾ 그는 1931년부터 대중극단 극작가로 활동했으며, 1937년부터는 중간극 극단인 중앙무대에서 활동했으며, 1942년부터 국민연극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월북하여 극작활동을 계속했다. 1930년대 초반부터 1940년대 월북하기까지 대중예술분야에서 활발한 창작을 하며 150여 편의 회극을 창작했다.

이처럼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이재명¹⁰⁾은 박영호 회극에 대한 논문을

6) 권순중, 김일영, 손중훈 공편, 『한국회극선-시대별 주요작품과 그 연구』, 중문출판사, 1989.

7) 이미원, 『국민연극』전4권, 도서출판 월인, 2003.

8) 이재명 엮음, 『해방전(1940-1945) 공연회극집』전9권, 평민사, 2004. 이 중에서 1-5권은 공연회극집, 6권은 중단막극집, 7권은 일문 회극집, 8권은 상영 시나리오집, 9권은 창작 시나리오집이다.

9) 이재명◎, 「박영호 회극의 인물 연구-〈산돼지〉·〈물새〉·〈별의 합창〉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7집, 한국근대문학회, p.121.

10) 이재명①, 「박영호 회극 <별의 합창>에 나타난 친일적 성향 연구」, 『한국연극학』21집, 한국연극학회, 2003. pp.63~83./「박영호 회극의 인물 연구

세 편 썼는데, <별의 합창>과 <산돼지>에 대한 개별 연구는, <산돼지>, <물새>, <별의 합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비교분석한 글에서 총정리되고 있다. 이재명은 이들 작품을 고수머리홍·칠성·시라이 등의 근대적 인물과 장덕대·용운 아버지·지옥성목 등의 전근대적인 인물의 대립 구조에서 근대적인 인물이 승리하는 구조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인물 구조는 근대화된 일본이 전 근대적인 조선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이 내세운 동아시아주의와 상통하는 것으로, 작품이 창작될 시대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다. 김향¹¹⁾은 <인간일번지>와 <등잔불>의 극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두 작품에서 보여주는 논리적 빈틈, 비연속성, 다양한 통일성의 추구, 귀납적 구성은 노동에 소외된 젊은이, 피압박자로 간도를 떠돌 수밖에 없는 일제 식민 무적이민자들의 불안하고 정처없는 삶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했다. 김향의 연구는 현대적인 시각으로 국민연극을 바라봄으로써, 작품이 창작될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다. 양수근¹²⁾은 박영호와 송영의 희곡에 나타나는 친일적 성격을 연구하였는데, 작품이 창작된 시기의 시대상황 및 연극계와 관련짓기보다는 다소 현대적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 외에 이종대¹³⁾는 박영호의 「무대희곡 창작의 실제」와 「조선성을 복습하고 희곡창작의 재필요」를 짚대로 하여, 같은 시기에 발표된 그의 희곡 분석을 통해 박영호의 희곡

<산돼지><물새><별의 합창>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7집, 한국근대문학학회, pp.120~146./ 「박영호 작 <산돼지> 연구」, 『한국극예술연구』16집, 한국극예술학회, 2002. 10. pp.395~422.

- 11) 김향, 「박영호 희곡 연구」, 『한국극예술연구』16집, 한국극예술학회, 2002. 10. pp.175~214.
- 12) 양수근, 「일제 말 친일 희곡의 변모 양상과 극작술 연구-박영호·송영 극작품을 중심으로-」, 명지대 박사논문. 2005. 12.
- 13) 이종대, 「박영호의 ‘무대희곡’ 창작의 실제」, 『한국어문학연구』42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2. pp.313~336.

창작의 이론과 실재를 고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박영호의 국민극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창작된 작품에 나타나는 친일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모든 공연물은 1934년 5월 8일에 반포된 조선총독부령 제197호 조선흥행등취체규칙(朝鮮興行等取締規則)에 따라, 총독부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검열받은 대본과 공연물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공연 도중에도 공연이 금지당했다. 것처럼 공연물에 대해 검열이 엄격한 상황에서, 일제는 일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연극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연극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민중의 힘, 투력·계몽력을 이용하여 국책(國策)의 방향을 알리고, 시국(時局)을 인식시키는 수단으로 연극을 이용했다.¹⁴⁾ 이처럼 일제의 조선 통치 수단으로 이용된 박영호의 국민연극을 살펴봄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통치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문화적인 입장에서 1940년대 초에 씌여진 박영호의 희곡을 국민연극 창작 지침 및 총독부의 통치이념과 관련지어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등잔불>(『문장』, 1940.2.), <산돼지>(1942), <물새>(1943), <좁은 문>(『조광』, 1943.12-1944. 1.), <김옥균의 사>(『조광』, 1944.3-5.), <별의 합창>(1945) 등의 6편인데, 이재명이 엮은 『해방전(1940-1945) 공연희곡집』에 게재본을 대상으로 삼는다.

II. 민족주의와 친일의 솔기없는 이음새

1. 자주권 획득, 대동아공영권 건설

국민연극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현대극장의 결성회 석상에

14) 星出壽雄④, 앞의 글, p.166.

서 정인섭은 ‘一億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기 위해 一心化’라고 했는데, 국책을 一路標識으로 삼아 東亞共榮圈 確立에 翼贊한다는 것이다.¹⁵⁾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이론적 배경이 된 일본의 자유민 권운동은 천부인권설을 원용하고 있으며, 천부인권설은 메이지 초기에 양명학의 ‘만물일체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⁶⁾ 이러한 논리를 통해 일본은 조선을 청국과의 관계에서 분리시켜 독립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서게 했다.¹⁷⁾ 이러한 시대상황은 1895년 한국교과서 『국민소학독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支那國은 我國과 갓치 亞細亞洲中の 一國이오 我國의 隣邦이라.”¹⁸⁾ 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지나¹⁹⁾(중국)을 동등한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 <등잔불>(1940)이다. 이 작품은 조선에 민적법이 시작되기 전, 가족을 거느리고 간도에 들어와 수전(水田)을 개발한 무적이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 15) 박영호, 「예술성과 국민국-새로운 모함과 새로운 의뢰」, 『문장』25호, 1941.
4. 양승국 편, 『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료집』12권, 태동, 1996. p.361. 이하 (자료집: 12권 페이지 수)로 표기한다.
- 16) 왕양명, 『견습록』, 평민사, 2000. p.370.
- 17) 가토 요코, 박영준 역,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정환론에서 태평양전쟁까지』, 태학사, 2003. pp.56~79 참조.
- 18) 학부, 『국민소학독본』(1895),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 개화기 교과서 총서』1권, 아세아문화사, 1977, p.24.; Andre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정여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7. p.640 재인용.)
- 19) 이때 사용된 ‘지나’는 20세기 초 일본에서 근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대비하여 과거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출현한 것으로, 이미 ‘지나’라는 용어에서 중화주의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표출되고 있다.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p.180.)

지국장 그렇죠, 그리구 만주에는 日, 鮮, 漢, 滿, 蒙- 이 민족 외에도 이십여개의 민족이 딸려 있잖어요. 이러한 전통도 다르고, 생활, 감정이 다른 민족을 한 기빨 아래다 모아놓고 소위 排他的 民族主義를 없앨 일. 또는 네가 잘라구 내가 잘라구 하는 정치상이나 경제상의 지배력을 없앨 일, 다아 똑같다 그런 말씀야. 그 모든 전통과 이념을 초월한 동아의 새로운 질서를 맏글자는 게 평화의 정신일 쥬니다.
(등잔불: 47)²⁰⁾

박영호는 만주국을 국가 단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조선·만주족·한족·몽골족 등의 민족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과 이념을 초월한 동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선행 작업의 일환이었다. 당시 『황성신문』은 기존의 중화주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인종적 단위로서의 ‘동양(the East)’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었는데, 일종의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가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었다.²¹⁾ 이러한 시대 조류는 지국장의 입을 통해, 저물어가는 중국 중심이 아니라, 떠오르는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공영권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본의 야욕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일본 중심의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물새> (1943)에서 잘 드러난다. 박영호는 <물새>에서 ‘일본이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간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바다를 제패하는 자는 세계를 제패한다.” 이는 로마의 영웅 키케로의 명언이지만, 서구 2천년 흥망의 흔적을 비추건대 페니키아도 해양정복을 국운의 열쇠로 삼았다. 더구나 15세기 말엽에 세계 무역을 독점한 스페인, 포르투갈도 그 후 네덜란드도 “7개의 바다에 태양이 저무는

20) 이재명 엮음, 앞의 책, p.47. 이하 (작품명: 페이지 수)로 표기한다.

21) 앙드레 슈미드, 앞의 책, pp.156~158 참조.

일이 없다.”는 적 영국의 2백년 해적사도 참으로 해운의 역사이다.

이번 대동아전쟁에 혁혁한 전과로 황군이 서남태평양상에서의 적 미 영의 근거지를 탈환한 것도 해양일본의 세계적 비약의 열쇠이다. “바다의 일본”의 기초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바다의 일본인”이며, 인간과 바다의 숙명적 투쟁에 지성을 다하는 일본인의 전통이다. 이것이 해군력이 되고 해운력이 되며 수산력이 되고 무역력이 되는 것이다.

140만명의 수산업자, 35만 5천척의 어선, 14억 5천만엔의 생산고, 이 방대한 숫자가 역력히 말해준다. 굳이 수산국이라 불리는 영국, 미국, 노르웨이, 러시아, 이렇게 4나라의 숫자를 합해도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²²⁾ (물새: 132)

과거에 바다를 제패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던 서구의 예를 들어 해양 정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일본이 해군력·해운력·수산력·무역력 등 ‘바다’를 기반으로 세계 정복의 길에 나섰음을 강조하고 있다. 바다를 매개로 세계를 제패한 서구와 일본을 대비시킨 뒤, 다시 서구를 능가하는 해양력을 가진 일본을 부각시킴으로써, 일본이야말로 세계 최강의 국가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은 1908년 11월 <소년(少年)> 창간호에 실린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의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에서 이미 나

22) “海を制するものは 世界を制す 此れは 羅馬の英雄シセロの名句であるが、西歐二千年の興亡の跡を徴しますに、フェニキアもタルタゴも、その後オランダも海洋征服を以つて國運の鍵と成した。更に十五世紀末、世界貿易を獨占したスペインもポルトガルも 七つの海に太陽の沒する事なし” の敵英國の二百年海賊史も洵に海運の歴史である。

今次大東亞戰爭の赫々たる戰果により、皇軍が、西南太平洋上に於ける、敵米英の根據地を奪ひ返したのも、海洋日本の世界的飛躍の鍵である。「海の日本」の基礎となるものは飽迄 「海の日本人」であり、人間と海との宿命的闘争に、至誠を盡くす 日本人の傳統である。此れが、海軍力となり、海運力となり、水産力となり、貿易力となるのである。

百四十萬人の水産業者、三百五萬五千隻の漁船、十四億五千萬円の生産高、此の龐大な數字が歴として物語る。敢へて、水産國と謂はれる、英、米、諾威、露西亞、四ヶ國の 數字を合計しても、日本に及ばないのである。

타나고 있다. 통념적으로 <해에게서 소년에게>에 쓰인 ‘차-근썩, ‘차-근썩, 척, 썩-아’라는 파도소리 의성어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신문물을 상징하며, 구시대의 잔재를 거부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작자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해석되고 있다. 또한 ‘소년’은 썩썩한 기상을 상징함과 동시에 개화의 물결을 상징하기도 한다. 즉 ‘바다’는 ‘세계’를 상징하며, ‘소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 시대의 주인공을 상징한다. 최재목에 의하면, 무능한 구세대의 표상인 ‘노년(老年)’이 아닌 ‘신세대=소년(少年)’을 발견하고, 그들을 애국계몽(愛國啓蒙)의 객체로 삼으면서 동시에 그 주체로서 계몽해가려는 의도가 담긴 『소년』지에서 당시 우승열패(優勝劣敗), 적자생존(適者生存)의 강박관념에 시달리던 사회의 복잡상(複雜相)과 긴장감을 읽어낼 수 있다고 했다.²³⁾

또한 최재목은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양명학의 ‘만물일체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을 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신사조의 발원은 바로 ‘태서’였고, 또한 ‘태서를 동양화(東洋化) 해낸’(=근대를 자기화한) 나라가 일본이므로 ‘태서/일본↔바다[海, 大洋]↔대한’라는 방정식을 <海에게서 少年에게>가 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바다는 대한의 소년을 계몽하는 희망의 소통선(疏通線)이자, 제국·외세의 유입선(流入線)이라는 것이다.²⁴⁾ 최남선이 <소년>지에 소개한 “대양을 지휘하는 자는 무역을 지휘하고, 세계의 무역을 지휘하는 자는 세계의 재보를 지휘하나니, 세계의 재화를 지휘함은 곧 세계 총체를 지휘함이오.”라는 ‘바다’에 관한 어록에 비추어 볼 때, ‘바다’는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였으며, ‘세계’는 당시 외래 선진 문명의 통로 역할을 하던 ‘일본’을 상징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

23) 최재목, 「최남선 『소년』지에 나타난 양명학 및 근대일본양명학」, 『일본어문학』33집, 일본어문학회, 2006.5. p.511.

24) 최재목, 「최남선 『소년』지의 ‘신대한(新大韓)’의 소년’ 기획에 대하여」, 『일본문화연구』18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6.4. p.265.

득력을 가진다.

이러한 사상은 <물새>의 등장인물 칠성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칠 성 응, 해군야, 해군지원병야. 인젠 나두 태평양(太平洋)두 갈 수 잇구, 대서양(大西洋)두 갈 수 잇서. 밤낮 지도만 되려다 보구, 여기가 태평양이다. 여기가 하와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미국 놈 손에 죽은 대가 여기다, 어제든지 원수 갚아 보인다 하든 맘을 이루게 되서. 꿈이 안나. 생시야.

쌍가마 정말야? 칠성이.

칠 성 응. 이번에 내가 온 건 누구보다도 쌍가매한테 먼저 이 소식을 알이려구 온 거야. 그리구 용운이두 손바닥만한 발동선이나 탈 생각말구, 나랑 갓치 지원병이 되자구 온 거야.
(물새: 175)

칠성은 해군에 지원함으로써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칠성의 해군지원은 ‘밤낮 지도로만 되려다 보던’ 태평양이나 하와이에 직접 가는 세계로의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세계로 진출하려는 최종 목표는 원수를 갚는 것이다.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할아버지가 미국 감독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지만, <물새>의 창작 시기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의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반영한다. 매우 합리적이고 선각적인 인물인 칠성이 해군지원병이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러워하며, 용운에게도 발동선을 타고 생선을 잡기 보다 해군에 지원할 것을 종용한다. 그 결과 ‘용운/발동선→칠성/해군지원병→태평양/세계제패’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사무관 세이쥬 나리테(星出壽雄)의 국민극 창작지침에 의하면, 조선이 새로운 일본을 형성하기 위해 반도의 대륙 전진 병참기지로 그 사명을 달성해야 한다고 한다. 정신적인 방면에서는 반도인이 진정 참다운

일본인이 하루 빨리 되는 것, 내지인과 함께 국가관념을 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훌륭한 일원으로서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는 무의식 중 황국신민의 감정으로 화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⁵⁾

이러한 논리는 <별의 합창>(194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頭山君 분해. 내 어디가 안 된다는 것인가. 난 어째서 군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체격으로 봐도, 학식으로 봐도 절대 송정 자식에게 지지 않는데. 나의 어디가 안 된다는 거지!²⁶⁾

(별의 합창: 393)

頭山君 아, 통지서. (기뻐한다.) 지옥성문 이, 바보 같은 놈은 어디로 간거야. 나를 무적자라고 이것 봐. 이것으로 훌륭한 일본 국민이 아닌가.²⁷⁾

(별의 합창: 412)

두산군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은 해군지원병이 되는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 일단 해군지원병이 되면 ‘무적자’라는 신분이 ‘훌륭한 일본 국민’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무렵은 두산군과 같은 신분상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이라 불리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민족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되는 시대였다. 신분상의 차별을 없애는 ‘국민’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은 백정 박성춘이 행한 연설 “군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백정과 관료가 뜻을 함께 모

25) 星出壽雄②, 앞의 글, p.168.

26) くやしんだ 僕のどこが いけないんだよ. 僕はは どうして 兵隊になれないんです. 體格から 見たって 學識から 見たって 絶對 松井の 奴に負けやねえ. 僕の どこが わるいんだ.

27) 아 通達書. (기뻐한다.) 地獄成木の馬鹿野郎は どこへ行 った. 俺を 無籍者たど 見らう これで 入派な 日本國民ぢゃないか.

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에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계급으로 인해 이전에는 차별받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된 것이다. 그의 연설은 스스로의 존재를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 민족의 개조에도 한몫을 해낸 셈이다.²⁸⁾ 이처럼 박영호는 칠성과 두산군이 해군지원병이 되는 것을 통해 황국신민으로서 연성(鍊成)된 일본인²⁹⁾의 모습을 충실하게 형상화해냈다.

<좁은 문>(1943)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대동아공영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석 자옥 씨, 동양엔 동양을 키운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살이 생기고 피가 생긴 동양 예수 동양 석가, 동양 공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영미 사람의 손때가 묻은 기독교를 정말 동양주의 기독교로 재건해야 합니다. (좁은 문: 226)

최인석에 의하면 기독교를 앞세워 식민지 영토를 착취해 온 미국 선교회의 횡포에 맞서서 동양주의 기독교를 확립해야 한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물새>의 칠성과 <별의 합창>의 두산군이 해군 지원병이 되어 ‘황국신민’으로 거듭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을 이룩하는 것과는 달리 종교적인 면에서도 서구 중심이 아닌 동양중심의 기독교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인 선교사 피터로 하여금 조국을 비난하게 함으로써, 영미제국에 반대하는 일제의 정책을 잘 드러내 준다. 김성희는 ‘좁은 문’³⁰⁾으로 상징되는 기독

28) 앙드레 슈미트, 앞의 책, pp.124~125 참조.

29) 星出壽雄①, 앞의 글, p.179.

30) <좁은 문>은 1909년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가 마태복음에서 영감을 얻어 발표한 소설 <좁은 문>의 한 부분을 인용해 종교적 관점으로 남녀의 참사랑을 다루고 있다. 마태복음(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

교정신을 그리고 있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미일전쟁을 들먹여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인석이나 한자옥에게서도 ‘조선’이라는 국가관은 전혀 없고, 일본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내선일체화된 인물들로 그려져 있다고 지적했다.³¹⁾ <좁은 문>에 담긴 동양주의 기독교 건설과 영미제국에 대한 비판은 녹기연맹 강사 矢鍋永三郎의 「전시문화 방책」에서 미영문화 숭배를 먼저 타파하고,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 건설을 주제로 한 일본적 사상에 입각해서 일본문화의 선양(宣揚)에 진력해야 한다³²⁾는 중요한 국민연극 창작지침에 부합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창작 지침에 의하면, 국민연극은 중대한 시국에 부응해서 국책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문화재로서 훌륭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시국을 천박하게 노출시킨 소위 시국편승적 작품이나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연극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³³⁾ 함대훈에 의하면,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경한 이론을 그대로 작품화하면 안 되고, 인생문제를 교묘히 취급해야만 인생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애국적 정신을 짜넣을 수 있다고 했다.³⁴⁾ 망야적 열광에까지 관객 전체를 비진화(沸騰化)하는 것이 국민연극의 본질인데, 과거의 신극에서는 지식계급만을 상대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대중 전체가 디오니소스적 도취 망야경에 이르는 연극으로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³⁵⁾ 이상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바람직한 국

르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고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양수근, 앞의 글, p.42.

31) 김성희, 앞의 글, p.223.

32) 矢鍋永三郎, 「전시문화 방책」, 『신시대』, 1942. 1. (친일극 연구: p.186.)

33) 星出壽雄^㉔, 앞의 글, p.180.

34) 함대훈, 「국민예술의 방향-독립영화 晩春四의 비평을 겸하여-」, 『춘추』11호, 1941.10. (자료집: 12권 p.438.)

35) 함대훈, 「국민연극의 방법론-서간체의 일수상」, 『춘추』, 11호, 1941. 12.

민연극이란, 국책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애국정신을 담아야 하며, 인생문제를 다루면서 그 속에 녹아들도록 해야 하는데,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호가 가진 국민연극 대한 생각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박영호는 신체제를 위하여 써진 몇 개의 상연물에서 예술적으로 다듬지 않은 소재대로 무대 위에 올린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연극은 창가나 연설 또는 수프레히코올이 아니며, 어디까지 객관적이며 형상적인 예술이므로, 예술적으로 탁마되고 용해되고 재연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⁶⁾

박영호의 희곡은 이러한 연극관으로 인하여 생경한 이론을 전면 에 내세우기보다 합리적이고 근대화된 인물을 내세워 국책에 동조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책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보다, 바람직한 인물의 모델링을 통해 국민연극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카를 융에 의하면 연극의 형태³⁷⁾로 나타나는 신화의 줄거리는 공동의 ‘꿈’을 보상해 주는데, 이때 연극에 대한 반응은 심층의 무의식으로부터 인식을 나타낸다고 한다. 연극의 줄거리는 의식의 저항을 피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 말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³⁸⁾ 즉 본보기가 되어주는 모델링을 통해 관객은 대리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박영호의 창작기법상의 특성은 제1회 연극경연대회에 출품한 <산돼지>에 대한 김건의 비평에서 잘 드러난다. 김건에 의하면 박영호는 항상 동적인 창작기법에 도취하고 있으므로 무대는 항상 분주하다는 것이다.³⁹⁾

(자료집: 12권 p.404.)

36) 박영호, 앞의 글, pp.206~207. (자료집: 12권 pp.362~363.)

37) 신화의 형태는 많은 동화, 소설, 연극, 시나리오에서 나타난다.

38) Birgit Wolz, *E-motion Picture Magic: A Movie Lover's Guide to Healing and Transformation*, Glenbridge press. 2005. (심영섭·김준형·김은하 역, 『시네마테라피』, 을유문화사, 2006. p.47.)

그런데 동적이고 분주한 무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움직임이 많아야 한다. 등장인물의 움직임이 많다는 것은 작품 전개가 사건 중심 즉 인물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바람직한 인물의 모델링을 통해 국민연극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극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박영호는 국민연극이 지향하는 대중을 위한 연극을 창작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국민연극은 일제의 통치이념을 몽매한 국민에게조차 쉽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다.

2. 고토회복, 탈아입구의 발판

만주는 동양의 발칸반도라 불리울 만큼⁴⁰⁾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 만큼 한반도가 만주를 얻으면 한민족이 강성하며, 타민족이 만주를 얻으면 한민족이 쇠퇴해지고, 한반도가 만주를 얻는 나라의 세력권내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았다.⁴¹⁾ 특히 만주는 일본 발전의 통로요, 일본 활동의 근거지요, 일본 장래의 출발점으로 꼭 필요한 곳이었다. 그러한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주에 철도를 설치했다.⁴²⁾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황성신문』의 논설들은 정기적으로 만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편집자들은 북방의 경제적 잠재성을 강조하면서, 미래 북방 경제의 전

39) 김건, 「제일회 연극경연대회인상기」, 『조광』, 86호, 1942. 12. (자료집: 12권 p.459.)

40) 신채호, 「만주문제에 의하여 재논함」, 『대한매일신보』, 1910. 1. 19-22. (『단재 신채호전집』 별책, p.242.)

41) 신채호, 「한국과 만주」, 『대한매일신보』, 1910. 7. 25. (『단재 신채호전집』 별책, p.234.)

42) 신채호, 「만주와 일본」, 『대한매일신보』, 1910. 1. 12. (『단재 신채호전집』 별책, p.235.)

망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므로, 한국인은 북방 경제의 발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³⁾

이러한 만주의 중요성은 <등잔불>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滿洲의 浪漫이란 新 아우탈키아의 建設입니다. 다시 말하면 自主經營의 建設이요, 重工業國家인 우리나라와 石炭이다, 鐵이다, 石油, 硫黃, 銅, 鉛, 알루미늄, 고무, 木材- 이런 것의 資源을 가진 만주와의 협력은 單一東亞의 產婆일뿐더러 北支의 蒙疆까지 집어 넣면 그 結果가 所謂 東洋 平和라는 것입니다. 北邊 振興이다, 五個年 計劃이다, 五族 協和다, 開拓民이다 허는 것이 新興 滿洲를 키워가는 條件들이거든요.
(등잔불: 47)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주는 중공업국가인 우리나라(일본)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만주와의 협력, 오족협화(五族協和), 개척민을 통해 만주를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연호는 <등잔불>이 한반도가 식민지화되기 이전에 간도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을 소재로 하여 그들이 결국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정책의 혜택을 받아 만주에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다는 내용을 미화시킨 작품으로 보았다.⁴⁴⁾ 이처럼 <등잔불>이 적극적인 만주 개척론을 펴고 있는데 비해, <물새>는 만주의 개척단과 관동군을 위해 공익을 위해 사욕을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칠 성 아저씨 마십시오. 만주에는 개척단이 있습니다. 북방을 지키는 관동군이 있습니다. 거저라두 쥐야 할 생선이 안입니까? 공정가격을 속이고 협정가격을 속여서 어름판에서 떨고 있는 동포의 피를 극는 것은 죄악입니다.

(물새: 189)

43) 앙드레 슈미트, 앞의 책, p.519.

44) 서연호, 앞의 책, p.129.

만주에는 1932년부터 1945년까지 관동군에 의해 세워진 만주국이 있었는데, 일제는 신해혁명(1911년)으로 황제에서 물러난 푸이를 만주국의 황제로 즉위시킨다. 만주국의 실질적인 통치권자인 일본은 ‘동양’에 대한 멸시에 기초한 탈아입구(脫亞入口)적 논리를 폈다. 『황성신문』은 여러 논설에서 “인종들의 경쟁시대에 오직 동양의 최강자인 일본만이 미개한 청나라와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고, 중국인과 조선인의 시의를 얻어 동양의 맹주로서 동양을 백인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다.”⁴⁵⁾고 주장함으로써, 친일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과거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관의 목적과 기능은 한국의 역사가들의 관점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하타 다다케시에 의하면, 일본역사가들은 한반도와 만주를 통합하여 역사를 서술하였는데, 한반도와 만주를 하나의 역사로 만듦으로써 한국을 대륙(중국)의 역사에 의존하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대륙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표상된다고 한다.⁴⁶⁾ 반면에 한국의 역사가인 김교헌은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한반도와 그 북방의 영토를 모두 포괄하는데, 만주에서 내려온 모든 조상은 같은 북방계 혈통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8도가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의 만주족들이 점령한 모든 영토, 특히 한나라의 영토, 몽골의 영토, 후이(回)족(Hui: 이슬람교도)의 영토, 티베트의 영토까지 모두 우리 민족의 영토로 포함시키고 있다.⁴⁷⁾

이처럼 신채호를 비롯한 한국의 역사가들은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좀더 유용한 과거를 강조하려고 만주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일제의 보호국이 된 한국은 국가의 공간 개념을 잃어버린 영토의 범위로 규정하였으며, 다시 획득되어야 할 영토의 범위로 규

45) 「世界平和が 在東洋」, 『皇城新聞』, 1906.12.10~11.

46) 앙드레 슈미드, 앞의 책, p.518.

47) 위의 책, pp.529~530.

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적 위기의 해법은 고토(故土) 회복주의자들의 희망, 즉 반도 바깥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고토회복주의자(revanchist)들은 만주의 역사를 중심에 두어 만주를 재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⁴⁸⁾ 신채호에 의하면, 말갈족과 여진족은 본래 고구려의 속부(屬部)로 함경도·황해도 등지에 거주하였으나, 고구려가 신라에 통합되면서 고구려 신하들이 요동·심양 등지로 가서 발해국을 건설하였는데, 금나라·청나라도 이들 민족이 건설한 것이라고 한다.⁴⁹⁾ 신채호의 이러한 민족에 대한 관점은 현재를 위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과거의 영광을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가 바로 만주였다. 만약 만주의 상실이 한국의 국력이 약화되는 원인이었다면, 그래서 만약 만주를 다시 찾는다면 한국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 이것이 신채호의 주장이었다. 역사적 과거 속에서 만주를 다시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신채호는 만주의 영광을 다시 찾기를 갈망했으며, 만주 탈환의 계획을 암시하기도 했다. 신채호는 만주를 단순히 과거의 한국인이 점령했던 영토로서가 아니라 한국사의 중심적 무대로서의 역할을 했던 존재로 서술하는 것이다.⁵⁰⁾

이러한 고토회복에 대한 의지는 한국인들의 만주에 대한 회복 의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 황실의 세력 강화와 정당화에 주로 이용되던 『고사기』에 의하면, 진구황후(神功皇后)가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정복하고, 신라를 일본의 ‘말지기 국(御馬甘, 馬丁)’으로 만들었으며, 백제에는 ‘관창’을 세웠다고 한다.⁵¹⁾ 뿐만 아니라

48) 위의 책, p.84.

49) 신채호, 「독사신론」, 『대한매일신보』, 1908. 8. 27~12. 13. (『단재 신채호 전집』上, p.474.)

50) 앙드레 슈미드, 앞의 책, pp.521~523 참조.

51) 위의 책, pp.346~349 참조.

광개토대왕 비문의 신묘년 기사에 “왜가 신묘년 바다를 건너와 백제, 가야,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倭以辛卯年 來渡海 破百殘 ○○○羅 以爲臣民)”고 해석하면서 한반도 남부의 지배를 기정 사실화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근거로 고마츠는 “최근 한일합병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라 사이의 첫 번째 통합이 아니라, 이미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인 두 나라의 통합이 부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35년간 식민지 통치기간동안, 한일합병을 ‘분리된 가족의 재결합’으로 묘사하는 다양한 논법들이 범람하게 된다.⁵²⁾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는 한국 학자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이다.

神公皇后께옵서는 신라 天日槍의 後裔시다. 그때 처음으로 일본황 후에 신라의 피가 석기졌고, 그 후 桓武天皇께옵서 京都에 서울을 御定 하옵신 十安朝初에 桓武天皇의 御母后께서는 百濟의 聖王의 曾孫女였었다. 이렇게 惶悚하옵게도 皇室을 비롯하여 臣民에 이르기까지 內地人과 朝鮮人의 피는 하나로 되어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天皇殿下의 臣民으로써 忠義를 다 하는 者가 되어야 할 것이며 및 우리의 藝術도 그러하여야 할 것이다.⁵³⁾

이광수에 의하면, 과거에 조선과 일본은 한 민족이었으며, 백제로부터 일본에 건너간 백제의 후손들이 고려촌에서 일본인과 결혼하여 완전한 일본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천황의 신민(臣民)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에 충성을 다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별의 함창>의 ‘작자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52) 위의 책, p.372.

53) 이광수, 「신체제하의 예술의 방향-문학과 영화의 신출발-」, 『삼천리』, 1941. 1. (자료집, 12권, p.337.)

“형제들이여, 2년 계약이라니 귀찮아. 적 놈들이 지옥의 화염에 휩싸일 때까지 몇 년이 되어도 우리는 열심히 석탄을 캐 것이다. 그래서 백제의 약광(若光)⁵⁴⁾ 할아버지가 되자. 내 평생 북큐슈의 석탄백성이 되어도 좋아.”라고.

(별의 합창: 358)

8세기 초에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약광(若光)이 일본에 정착했듯이, 비록 광부들이 2년 계약을 맺고 왔다 하더라도 북큐슈 탄광에서 평생 일하라고 중용한다. 일단 정착을 하게 되면 현지의 일본인과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寮 監 그래, 나는 내선일체는 결혼에서 태어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반도인이지만 일본 여자를 아내로 맞고 있다 누구라도 진실된 황민화 운동은 국어로부터 생겨난다고 말한다. 확실히 그렇다. 구러니까 말이야. 일본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어쩔 수 없이 국어를 쓰지 않을 수 없지. 그런 의미에서도 白井 君과 澄枝 씨의 결혼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하.....

(별의 합창: 422)

료감(寮監)의 말을 빌리면, 진정한 내선일체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내선결혼은 창씨개명, 징병제 등과 함께 중용한 식민지 동화정책 중 하나로, 조선인의 ‘피와 살도 모두 일체가 되는 내선일체의 최후 단계’로 1936년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 부임 이후 적극적으로 권장된 정책이었다.⁵⁵⁾ 이처럼 먼 옛날, 일본이 한국을 침입한 일이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인과 일본인이 한 핏

54) 8세기 초에 일본으로 건너온 고구려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를 모신 신사가 고려신사이다.

55) 이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pp.47~48.

줄이 되었다는 신화 상의 이야기는 일제의 조선 식민화를 정당화 시켰다. 박영호는 일제가 자기 합리화를 위해 내세우는 주장을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녹기연맹은 총독부의 ‘내선일체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운동의 핵심적 활동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녹기연맹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현영섭은 『녹기』 1937년 1월호에 「조선인의 사상동향」을 시작으로 1937년 한 해만도 『녹기』 지상에 8편의 글을 발표하면서 녹기연맹의 내선일체론을 선도해나갔다.⁵⁶⁾ 이승엽에 의하면 조선독립은 현실적으로 바라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총독 미나미 지로의 “내선일체의 최종목표는 내선인간의 완전 평등”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한국인 내선일체론자들은 적극적인 자기 부정과 제국으로의 동화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이것은 내선일체론이 내비치고 있는 ‘보상의 논리’, 곧 “완전한 일본인이 됨으로써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일도 없어진다.”는 ‘차별로부터의 탈출’ 논리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한다.⁵⁷⁾

1941년 1월 『내선일체』에 실린 <内地人と朝鮮人との配偶者統計表>에 의하면, 일본남성과 조선여성의 내선결혼이 많았던 조선에서도 1935년을 기점으로 그 비율이 역전되어 1940년에는 조선남성과 일본 여성이 결혼한 경우가 일본남성과 조선여성이 결혼한 경우보다 3배 이상 많았다.⁵⁸⁾ 한편 일본에서도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까지 결혼한 조선남성 중 약 40%가 일본 여성과 내선결혼을 했다.⁵⁹⁾

56) 이승엽, 「내선일체운동과 녹기연맹」, 『역사비평』, 2000년 봄호(통권50호), 역사비평사, 2000. 2. pp.200~204 참조.

57) 이승엽, 위의 글, pp.212~213.

58) 오오야 치히로, 『잡지 『내선일체』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양상 연구』, 연세대 국문과 석사논문, 2006.7. p.63.

59) 外村大,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 綠蔭書房, 2004. 오오야 치히로, 「잡지 『내선일체』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양상 연구」, 『사이間SAI』 창간호,

그런데 박영호는 <별의 합창>에서 료감은 내선결혼을 한 상태지만, 조선인 시라이(白井)와 일본여성 스미에(澄枝)의 사랑의 결말은 ‘地獄成木 李같은 마음의 무적자를 이성이 있는 훌륭한 석탄전사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결혼은 미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40년 당시의 내선결혼관을 제시한 김용제의 ‘내선결혼의 경우에도 다른 결혼의 경우와 같이 가정생활이나 당사자간의 순진한 애정과 이해에서의 출발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⁶⁰⁾는 지적처럼 박영호 역시 내선결혼을 국가차원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호의 희곡에서는 내선결혼뿐만 아니라 조선인들끼리의 결혼도 성사되지 않는데, 그것은 <산돼지>의 흥기사가 생활현장이 좋다는 이유로 길애(吉愛)의 사랑을 거절하고, <물새>에서 칠성이 ‘나라없이 사랑이 어딴’라며 쌍가마를 뿌리치고 해병에 지원하며, <좁은문>에서 최인석이 한자옥을 배우자로 서가 아니라 ‘참 믿음 참사람의 길을 걷는 동지’로서 맞아들이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결말은 박영호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1940년대를 상징하는 핵심어인 ‘신체제’는 국민 각자의 세계관, 인생관, 국가관, 생활감정에서 개인주의를 없애고 이기주의를 타파해서 국가의 목적을 위해 기여하는데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목적’은 작게는 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를 가리키지만 크게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신질서의 건설이었다.⁶¹⁾ 결국 신체제의 목적은 전쟁하에서 국민총력의 동원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주의’가 추구되었던 것이다. 결혼을 사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박영호로서는 ‘국가를 위한 예술’의 예술성을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6. p.287 재인용.

60) 김용제, 「內鮮結婚我觀」, 『내선일체』, 第一卷 第一號, 내선일체실천사, 1940.1. p.56~62. 위의 글, pp.284~285 재인용.

61) 위의 글, pp.285~286. 그렇지만 오오야 치히로는 내선결혼을 개인간의 결혼이 아니라 국가간의 결혼으로 확대하는 ‘국가를 위한 결혼’의 논리는 이러한 국가주의체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위해⁶²⁾ 사적인 감정인 결혼은 당연히 보류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고토회복론자들의 논리를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은 한 핏줄이므로, 일본여자와의 결혼이나 국어(일어)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도록 한다. 星出壽雄에 의하면, 국어(일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어 연극은 많이 제공함으로써, 연극이 국어보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극 구성을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에서 연극에 등장하는 일상의 간단한 용어나 대사의 일부를 일어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⁶³⁾ 그런데 박영호는 <물새>의 ‘작의(作意)’를 일어로 작성하고, <별의 합창>의 경우, 극중 배경을 북큐슈의 탄광으로 설정함으로써, 등장인물들이 일부 대사를 일어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설정하였다. 그럼으로써 총독부의 사무관이 창작지침으로 제시한 “조선이 새로운 일본을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최근 자주 언급되는 말로서, 반도의 대륙 전진 병참기지로 그 사명을 달성한다.”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민족의 개념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신념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서로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을 때 정신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공통의 언어나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복수의 사람들이 공통의 미래를 꿈꾸고, 운명공동체로서의 정치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처음에는 인공적인 집합에 불과했던 것이 여러 세대에 걸친 공동생활로 인해 마치 같은 조상을 가지는 것처럼 신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⁶⁴⁾ 일제는 한반도를 발판으로

62) 박영호, 앞의 글, p.206 (자료집 12권, p.362)

63) 星出壽雄⑥, 앞의 글, p.183.

64) 고자카이 도시아키(小坂井敏晶), 방광석 역, 『민족은 없다』, 뿌리와 이파리, 2003. p.46.

탈아입구적 욕망을 달성하려는 필요에 의해, 한국과 일본이 동일 민족이라는 신화를 창조하여 공동운명체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3. 문명개화, 식민화의 수용

초창기 ‘문명개화’를 열렬히 지지하던 『독립신문』(1899. 4. 10.)은 새로운 시대를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유학자들의 태도가 ‘여름에도 겨울옷을 고집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한민보』(1909. 6. 20.)의 풍자만화에 의하면, 근대화된 모습을 한 사람이 턱을 고이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양반을 향해 “이제 그만 깨어나라!”라고 소리지르는 강경한 명령어로 압축되고 있다. 이처럼 양반은 조선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의 불행은 그들의 탓으로 돌아갔다. 신문은 양반을 여러 주제와 결부시켰는데, 그 가운데 실용적 지식의 부족함, 게으름, 부패, 당파주의의 경향과 같은 주제들은 일본 신문의 한국 관련 기사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⁶⁵⁾

당시 만연했던 양반 내지는 집권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김옥균의 사>(1944)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박영호 연락(宴樂)을 즐기는 민비의 사치하는 비용은 팔도 수령방백(守令方伯)에게 감투를 팔아 맥구고, 돈을 바치고 감투를 산 지방관들은 미천을 뽑기 위하여 그 고을 농사꾼들의 재물을 긁는 것이 오늘의 조선이오.

(김옥균이 사: 274-275)

김옥균이나 박영호 같은 개화인사의 눈으로 봤을 때, 당시 조선은 부정부패로 병든 상태였다. 그들은 정부가 안으로부터 개혁하

65) 앙드레 슈미드, 앞의 책, pp.295~296.

기 불가능함을 깨닫고, 1884년 일본을 등에 업고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김옥균을 위시한 개화인사들은 정권획득을 위한 조급함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김옥균의 사>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과정, 일본으로 망명을 하는 과정, 망명생활, 상해에서 피살되기까지 김옥균의 삶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⁶⁶⁾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조선 왕조 말기의 개혁사상가인 박지원, 이익, 정약용 등의 후예라고 생각함으로써,⁶⁷⁾ 역사적인 정통성을 획득하려고 했다.

다음은 김옥균이 고종황제에게 쓴 서한의 일부이다.

김옥균 전하. (편지를 권 손이 와들와들 떨린다.) 입에서 첫비린내 나는 小兒 袁世凱를 물리쳐 주소서. 老僧 英國艦隊를 巨文島에서 물리쳐 주소서. 음흉한 淸國, 우악한 魯國을 막아 주소서. 안으로 백성의 피를 극는 兩班士族의 발호를 철폐 하시옵고 無識無能, 守舊頑陋하는 大臣輔國들을 몰아내시옵고 허울좋은 門閥보다 人才를 아끼시옵고 親히 殿下께옵서 國事의 實權을 건우옵소서.

(김옥균의 사: 318)

김옥균은 조선에서 청(淸)을 몰아내고, 양반사족(兩班士族)을 철폐하고, 고종황제로 하여금 국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당시

66) 박영호의 <김옥균의 사>와 김충식이 작성한 김옥균의 전기가 거의 일치한다. 김충식, 「풍운아 김옥균 일본 망명 10년의 궤적·절해고도 오가사와라에 남긴 두 글자, ‘정관(靜觀)’!」, 『신동아』, 통권555호, 2005.12.1. pp. 286~299. 박영호는 <김옥균의 死>를 집필하기 위하여 八峯 金基鎭으로부터 중요한 史料를 많이 제공받았으며, 그 외에도 參考文獻으로 中村吉藏 氏의 <頭山滿>, 信夫淳平 氏의 <韓半島>, 趙容萬 氏의 <船の中>, 松本正純 氏의 <金玉均評傳> 등에서借畧한바 많다고 했다. 이재명 엮음, 앞의 책, p.270.

67) 실제로 김옥균과 개화인사들은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의 집에서 수학했으며, 박규수 또한 강화도조약 이전에 개방정책을 옹호한 유명한 인물이다. 앙드레 슈미트, 앞의 책, p.104.

조선의 기득권층을 몰아내고자 하는 김옥균의 파격적인 요구는, 당시 신문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듯이 집권층을 비롯한 양반의 부정부패와 근대문명에 대한 무지가 문명개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앙드레 슈미드의 지적처럼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개혁만이 민족의 살 길이요 개화된 외국으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명개화는 그 이중적 속성으로 인해, 식민화의 수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도 있었다.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며, 덜 문명화된 국가는 더욱 문명화된 국가의 지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⁶⁸⁾

국민연극의 이론가인 함대훈은 이 영웅적인 역사상 인물의 행동으로서, 조선인도 옛날에는 쇠락(衰樂)하지 않았으니 옛 사람의 피를 본받는다면, 대동아공영권을 이룩할 수 있다는 영웅심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극에서는 영웅적 행동, 개척정신 등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확립이란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즉 한번 세운 뜻을 이룩하려는 그런 영웅적인 낭만성을 길러주는 역사극을 창작하는 것이다.⁶⁹⁾ 이런 점에서 <김옥균의 사>는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면, 근대화를 훨씬 앞당길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김옥균의 개척정신이 부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긴 세월의 험난한 망명 생활 동안에도 개혁의 의지를 버리지 않은 김옥균의 강한 의지는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이었으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확립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는 김옥균이 죽고 능지처참당한 이후,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규장각 대체학’으로 복권시킴으로써, 대동아공영권 형성의 영웅적인 존재로 형상화했던 것이다.⁷⁰⁾

68) 앙드레 슈미드, 앞의 책, pp.322~333.

69) 함대훈, 「국민연극의 방향」, 『춘추』, 5호, 1941. 6. (자료집 12권, p.377.)

당시 만연했던 구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일반 서민에게도 적용되었다.

張德大라고 하는 옛날 山師가 있다. 그는 遠見法이니 中夜望氣法이니 하는 옛날 探鑛法을 내세고 洪의 物理探鑛을 否定하였다. 두 사람은 자연 등같이 나게 된다. 張의 人間面을 소개하면 自稱 禁衛營上鉞正一品 文官의 외손이노라 하고, 감투를 집어 던지고 家族을 버리고 金店판으로 뛰어들 때 찬집 하나를 달고 나섰다.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겠다. 그러나 입맛의 驕慢은 버리지 못 했다는 위인이다.

(산돼지: 62-63)

康令者 …… (한숨) 옛날 인심이 안야. 제 코들이 빠졌을 적허군 달려. 내 집 뜰광에서 술찌검이루 배를 채우고 내 조머니에서 담배값을 터러 가든 놈들이 지금은 일류 무역업자 일류 수출업자들이 뒳다구, 잔뜩 책상다릴 허구 어디 대거리나 하든가. 의리부동한 놈들.

(물새: 180)

<산돼지>의 장덕대는 금위영상식 정일품 문관의 외손이라는 폐기되어야할 과거의 신분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옛날 탐광법에 연연하는 문명개화에 어두운 인물이다. 또한 그의 까다로운 입맛과 달고 다니는 찬집은 향연과 축첩에 빠져 현실을 도외시하던 양반계층(지배계층)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물새>의 강령자 역시 과거에 누렸던 부(富)와 권세에 젖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는 한선(韓船)을 고집하는 인물이다. 장덕대와 강령자와 달리 신세대들은 근대화를 추구

70) 1894년 12월. 갑오경장에 따라 총리대신 김홍집과 내무대신 박영효의 연립내각이 들어서면서, 김옥균은 왕명에 의해 완전히 복관(復官)되었으나, 이듬해 아관파천으로 정세가 뒤집히면서 복권조치는 취소되었다. 김충식, 앞의 글, p.299.

하는 인물이다.

고수머리 洪君. 君은 확실히 時代를 안다. 強 한 信念과 確實한 至性과 熱烈한 征服慾을 가진 技術的 인테리인 것을 안다. 遠見法이니 中夜望氣法이니 하는 낡은 山相學을 미신이라고 반박한 것도 안다. 磁氣法, 重力法, 電氣法, 彈性波法-이와 갖흔 物理探鑛의 持論도 안다.

(산돼지: 62)

고수머리 홍은 근대적인 물리탐광법을 아는 인테리리얼 뿐만 아니라, 생활현장을 떠나서 문화생활의 길을 걷자는 애인 최길애의 권유를 거절하고, 금광에서 인생을 단련시키는 인물이다. 이재명은 <산돼지>를 현대적 물리 탐광법/ 옛날식 산상법, 신세대/ 구세대, 근대/ 봉건의 대립 구도로 보면서 일방적인 전자의 승리만을 그리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장면에서 둘 사이의 화해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았다.⁷¹⁾ 또한 이재명은 <별의 합창>의 시라이는 <물새>의 칠성(松本七星)처럼 남들보다 앞서 창씨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일한 덕택에, 단도 탄광의 일성요 3호실 실장 겸 분대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를 ‘조선인 응징사(膺懲士)의 모범’으로, ‘일본인으로써 황토를 지키고 영주하려는 정작 욕심이 많은 인물’로 불릴 정도로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적극적인 인물로 그렸다.⁷²⁾ 이처럼 고수머리 홍, 칠성, 시라이 등의 문명개화된 이상적인 인물들이 창씨개명(시라이, 松本七星)을 하거나 해군에 지원(칠성)하는 것으로 그림으로써 친일행위를 모델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노자는 사회진화론이 대중화된 1900년대부터 일제 말기까지, ‘약육강식이 곧 우주와 사회의 도리’, ‘적자생

71) 이재명①, 앞의 글, p.417.

72) 이재명②, 앞의 글, p.137.

존은 우주의 불변의 원칙'이라는 등식으로 집약되는 사회진화론은 만물의 선형적 진리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했다.⁷³⁾ 앙드레 슈미드 역시 문명개화의 이중적 속성이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민족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국의 개화인사들이 스스로를 민족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명개화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문명개화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⁷⁴⁾

III. 결론

박영호의 국민연극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양명학의 만물일체설을 근거로 하여 일제는 조선을 청으로부터 분리시켰으며, 1895년 한국교과서에도 한국과 중국을 동등한 관계로 파악한 글이 실렸다. 이렇게 자주권을 획득한 한국은 더 이상 중국과 주종관계에 묶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려는 일제의 야욕에 의해 진행된 작업이었는데, 막강한 해양력을 기반으로 대동아공영권을 형성하려는 일제의 야욕이 해군지원병이 된 <물새>의 칠성과 용운, <별의 함창>의 두산군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단군이 세운 고조선이 북방민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후손인 북방민족들도 우리민족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만주를 한국의 영토로 간주했다. 나아가 잃어버린 만주의 옛 땅을 되찾아 조국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

73) 박노자, 『우승열패의 신화』, 한계레신문사, 2005. p.82.

74) 앙드레 슈미드, 앞의 책, p.58.

다는 논리로까지 발전시켰다. 일본도 신화 상에 존재하는 임나부 일본설을 내세워, 한국의 식민지화를 ‘본래 하나였던 나라가 다시 합쳐지는 것’이라며 합리화 했다. 나아가 일제는 탈아입구의 야욕을 위해 만주이주를 장려했다. 이것은 <등잔불>의 만주 이주민, <별의 합창>의 일본여자와 결혼해서 이룬 내선일체, <물새>와 <별의 합창>의 일부분을 일어로 쓰는 것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셋째, 초기 문명개화를 지지하던 신문들은 양반이 조선의 후진성을 상징한다며 비난했는데, 이러한 정서는 <김옥균의 사>의 민비를 비롯한 양반사대부, <물새>의 강령자, <산돼지>의 장덕대, <별의 합창>의 지옥성문을 통해 잘 형상화되고 있다. 반면 <산돼지>의 고수머리 흥, <물새>의 칠성, <김옥균의 사>의 김옥균, <별의 합창>의 시라이 등과 같이 문명개화된 인물을 이상적인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문명개화는 좋은 것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문명개화된 인물이 창씨개명(시라이, 松本七星)을 하거나 해군지원병(칠성·용운·시라이)이 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친일행위를 모델화시키고 있다.

넷째, 박영호의 희곡은 국가이념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문명개화된 긍정적인 인물의 모델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 외에 현실감 있는 소재를 취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꿈을 담아내면서, 뛰어난 예술성을 추구하여 관객의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국민연극의 창작지침에 충실하게 실천한 결과이다.

다섯째, 박영호는 결혼은 사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별의 합창>의 조선인 시라이(白井)와 일본여성 스미에(澄枝)의 내선결혼 뿐만 아니라, <산돼지>의 흥기사와 길애, <물새>의 칠성과 쌍가마, <좁은문>의 최인석과 한자옥을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말로 이끌지 않는다. 이것은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라는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감정은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단재 신채호전집』上·별책, 형설출판사, 1998.
- 양승국 편, 『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료집』, 12권, 태동, 1996.
- 이미원, 『국민연극』2권, 도서출판 월인, 2003.
- 이재명 엮음, 『해방전(1940-1945) 공연회곡집』1권, 평민사, 2004.
- 『황성신문』

2. 논문

- 김성희, 「국민연극에 관한 연구」, 『한국연극학』2집, 새문사, 1985. 12. pp.206~233.
- 김충식, 「풍운아 김옥균 일본 망명 10년의 궤적-절해고도 오가사와라에 남긴 두 글자, ‘정관(靜觀)’!」, 『신동아』 통권555호, 2005. 12.1. pp.286~299.
- 김 향, 「박영호 희곡 연구」, 『한국극예술연구』16집, 한국극예술학회, 2002.10. pp.175~214.
- 양수근, 「일제 말 친일 희곡의 변모 양상과 극작술 연구-박영호·송영극작품을 중심으로-」, 명지대 박사논문. 2005. 12.
- 오오야 치히로, 『잡지 『내선일체』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양상 연구』, 연세대 국문과 석사논문, 2006.7.
- 오오야 치히로, 「잡지 『내선일체』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양상 연구」, 『사이間SAI』 창간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6. pp.271~301.

- 이승엽, 「내선일체운동과 녹기연맹」, 『역사비평』 2000년 봄호(통권50호), 역사비평사, 2000. 2. pp.200~216.
- 이재명^㉔, 「박영호 작 <산돼지> 연구」 『한국극예술연구』16집, 한국극예술학회, 2002. 10. pp.395~422.
- 이재명^㉕, 「박영호 희곡 <별의 합창>에 나타난 친일적 성향 연구」, 『한국연극학』21집, 한국연극학회, 2003. pp.63~83.
- 이재명^㉖, 「박영호 희곡의 인물 연구-<산돼지><물새><별의 합창>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7집, 한국근대문학회, pp.120~146.
- 이종대, 「박영호의 ‘무대희곡 창작의 실제」, 『한국어문학연구』42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2. pp.313~336.
- 최재묵, 「최남선 『소년』지에 나타난 양명학 및 근대일본양명학-근대한국양명학의 맹아기-기회기의 한 양상-」, 『일본어문학』33집, 일본어문학회, 2006.5. pp.509~542.
- 최재묵, 「최남선 『소년』지의 ‘신대한(新大韓)의 소년’ 기획에 대하여」, 『일본문화연구』18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6.4. pp.249~274.

3. 단행본

- 가토 요코(加藤陽子), 박영준 역,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정한론에서 태평양전쟁까지-』, 태학사, 2003.
- 고자카이 도시아키(小坂井敏晶), 방광석 역, 『민족은 없다』, 뿌리와 이파리, 2003.
- 박노자, 『우승열패의 신화』, 한계레신문사, 2005.
- 서연호, 『식민지 시대 친일극 연구』, 태학사, 1997.
- 이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 왕양명, 『견습록』, 평민사, 2000.
- Andre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정여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7.)

Birgit Wolz, *E-motion Picture Magic: A Movie Lover's Guide to Healing and Transformation*, Glenbridge press. 2005. (심영섭·김준형·김은하 역, 『시네마테라피』, 을유문화사, 2006.)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A Study on National Theater of Park Young-Ho

Yoon, Il-Soo

National Theater refers to a theater which reflects national mind which tries to construct the independent, unified nation on the basis of national consciousness. Historically, it designates one of the modern movements in the 19th century related with establishment of modern nation in consequence of the growth of civic consciousness. In Korea, it designates a theater with a political purpose of making people into subject on the basis of artistry of theater. Therefore, Governor-General of Korea, issuing the Regulations on Theater and its Performance(朝鮮興行等取締規則), censured strictly the theatrical company, actor, performance work, and especially, Seizu Naride(星出壽雄) make a plan for National Theater.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actual state of National Theater through works of Park Young-Ho, who was active in the theatrical circles at that time. In its subject matter, National Theater in the scenery of the fishing and mining village dealt with common incidents,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e problems on Chosun people immigrated to Manchuria, and the historic heroic characters such as Kim Ok-Gyun. With these subject matters, the imperialist Japan, by reflecting the message on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and the making of Tenno's subject, realizes his own ambition of aggression. And looking at the aspect of methodology for spreading such thoughts, under the situation at that time that people could not enjoy the cultural benefits a lot, in case that the expression of national policy on National Theater was straightforward, there might happen a considerable reaction, and naturally the roundabout expression was arranged, by making the positive characters enter the stage. Besides, the method of moving the audience is used by putting a sound dream into the works, or by adding an excellent artistry into it.

Key words : National Theater, Park Young-Ho,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Making of Tenno's subject, The doctrines of Wang Yangming, Governor-General of Korea

윤일수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객원교수

주소: (706-76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지3길 38번지

매호동 매호1차 동서타운 101동 1002호

전화번호: 053) 792-9525 / 018-506-9525

전자우편: yoony9525@chol.com

이 논문은 2008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8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6월 30일 간행함